

러시아軍, 동부 하리코프·수도 키예프 집중 타격

우크라이나 침공 옛새째...주거지 포격으로 민간인 사망자 속출 젤렌스키 “민간시설 공격 전쟁범죄” 러 국방 “군사작전 계속할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옛새째인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리코프와 수도 키예프, 남부 도시 헤르손 등을 중심으로 공격을 계속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으로 이들 주요 도시 가운데 아직 한 곳도 확실하게 점령하지 못한 가운데 민간인 주거지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과 폭격에 나서는 등 공격 양상도 점차 거칠어져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올렉시 아레스토프비치는 이날 “하리코프와 키예프 서북쪽, 헤르손 등이 가장 전투가 격렬한 곳이며, (남부) 마리우폴 인근에서도 간헐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전날부터 러시아군의 공격이 격렬해진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리코프에선 이날도 주정부 청사와 중앙광장, 다른 민간시설 등이 다연장포와 순항미사일 등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날 러시아군의 하리코프 주거지역 포격으로 8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또 하리코프 주정부 청사 포격에서도 10명이 숨지고, 10명은 건물 잔해에서 구조됐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사람들이 붐비는 하리코프 도심의 중앙광장에도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영상 연설에서 “하리코프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다. 이는 러시아의 국가 테러리즘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대표적인 유대인 학살 사건인 ‘바비 아르’ 계곡 총살 사건 희생자들의 추모 시설 인근에 있는 키예프 서북쪽 TV 방송 타워를 공격하는 야만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TV 타워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인 5명이 숨지고 추모시설이 일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러시아의 장갑차·탱크·화포 등은 키예프 도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으며, 북쪽에서 키예프 방향으로 진군하는 군사 장비의 대열이 무려 65k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고위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군수물자 공급 문제, 러시아의 작전 준비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남부 도시 헤르손으로도 러시아군이 진입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시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밝혔다.

헤르손 시내에선 시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부 도네츠크 지역 친러반군은 진군을 계속해 아조프해에 접한 항구도시 마리우폴로 진격한 러시아군과 합류했다고 러시아 신문 ‘노바야 가제타’가 전했다. 마리우폴이 완전히 점령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군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매체들은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진격이



1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리코프의 시청사 밖으로 사망자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옛새째인 이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리코프와 수도 키예프, 남부 도시 헤르손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 포격과 폭격에 나서 민간인 피해도 속출했다. /연합뉴스

예상보다 지체되는 러시아군 사이에서 사기 저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병사들은 전투도 하지 않은 채 항복한다고 전했다.

압도적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진군이 우크라이나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더욱 격렬한 무차별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을 이틀 후 휴전 협상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양측은 벨라루스 고멜주(州)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향후 며칠 내로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지역에

서 2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이날까지 협상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일부 러시아 매체들이 이르던 2일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독재자가 대가 안치르면 더 많은 혼란”

“서방 대응 안할거란 푸틴 생각 틀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서방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백악관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전쟁은 사전에 계획됐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외교 노력을 거부했다”면서 “그는 서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틀렸다”며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계속 (혼란을 향해) 움직이고, 미국과 세계에 대한 비용과 위협은 계속 증가한다”며 “이것이 2차 대전 후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나토 동맹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물가와 싸우는 한 방법은 임금을 낮춰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나는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이 아닌 비용 절감, 미국 내 더 많은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더 많은 상품의 빠르고 값싼 이동 등을 제시한 뒤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이를 만들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제의 생산 능력 증대라고 부르지만 나는 ‘더 나은 미국 만들기’라고 부르겠다”며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내 계획은 여러분의 비용과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IEA, 석유 6천만배럴 방출 합의...유가 2014년 이후 최고

美 “공급 붕괴 방지 모든 수단”

한국 “비축유 방출 적극 동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1일(현지시간)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초기 분량으로, IEA는 상황에 따라 추가 방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IEA 31개 회원국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시장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없애는 것이라는 통일되고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IEA는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며, 1974년 아랍의 석유

금수조치로 제도가 설정된 이후 네 번째다.

이번 방출량은 전세계 하루 소비량보다는 적다. 러시아는 하루 400만~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 이번 방출량은 러시아 수출량의 최대 15배에 달한다.

이번 방출량의 절반은 미국에서 나올 예정이다. 쟈니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IEA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부가 미 전략 비축유 3000만 배럴을 방출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IEA 회원국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붕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에서 탈파괴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를 가속하고 러시아의 석유·가스 무기화로부터 세계를 보호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EA 발표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을 규탄하고, 푸틴 대통령이 선택한 전쟁의 영향에 대처하고 자 협력하는 전 세계 파트너들의 또 다른 분보기”라고 했다.

한편 문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수출통제, 금융제재 및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도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공급 차질에 관한 시장의 우려만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10% 넘게 뛰면서 배럴 당 105.61달러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컸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 당 106.77달러로 9% 뛰었다. 브렌트유 가격은 2014년 7월 이후 최고, WTI는 2014년 6월 이후 최고였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td> </tr> <tr> <td></td> <td>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td> </tr> <tr> <td></td> <td>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td> </tr> <tr> <td></td> <td>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td> </tr> <tr> <td></td> <td>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td> </tr> <tr> <td></td> <td>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td> </tr> <tr> <td></td> <td>광산구 삼계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td> </tr> <tr> <td>전남</td> <td>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td> </tr> <tr> <td></td> <td>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td> </tr> <tr> <td></td> <td>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td> </tr> <tr> <td></td> <td>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td> </tr> <tr> <td>시외</td> <td>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td> </tr> <tr> <td></td> <td>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td> </tr> </table>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계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
광주	남구 행암동(임야)▶ 감정가 97억 -> 54억 (2/2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3억7천 -> 3억 (2/23)																											
	북구 일곡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1천 -> 4억8천 (2/23)																											
	북구 본촌동(근린시설)▶ 감정가 15억 -> 11억 (3/2)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3억1천 (3/3)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7천 (3/4)																											
	광산구 삼계동(임야)▶ 감정가 3억9천 -> 1억7천(3/15)																											
전남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감정가32억 -> 18억 (2/21)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감정가 25억 -> 11억 (2/28)																											
	나주시 금천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3/15)																											
	나주시 다도면(주택)▶ 감정가 9억9천 -> 5억5천 (3/15)																											
시외	당진시 송산면(다가구원룸)▶ 감정가 4억8천 -> 8천 (2/15)																											
	서울특별시 중랑구(근린주택)▶ 감정가 17억 -> 8억8천(3/2)																											
010-6670-9800																												